

연극소감

택시를 생각하면서

14학번 김정은

추억은 말 그대로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을 말합니다. 연극 연습을 했던 당시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축제준비를 하면서 다른 일들도 같이 준비해야 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좋은 사람들과 매일 연습을 하고 장난도 많이 치면서 돈독해 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친 상황에서도 서로 격려해가면서 좋은 사람들과 추억을 쌓았고, 또한 그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여서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레이션을 맡겠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비중이 큰 역할이었습니다. 신입생 때에도 연기를 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대사를 내가 외울 수 있을까?", "연기는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틈틈이 대사를 암기했고, 그랬더니 거의 암기되어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대본 없이 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본을 외웠다고 해도 연기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나레이션은 어떤 어조로 어떤 표정으로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매번 연습 때마다 조금씩 바뀌가면서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무대에 설 수 있는 자신감

만큼이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그만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연극을 준비하면서 도전해 보지 못한 영역을 경험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마냥 아득히 느낌만 남았던 한 해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생각보다 좋았던 일이 많았습니다.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나빴던 경험을 추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추억이라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듯합니다. 제가 추억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 속에 숨어있던 추억들을 다시 한 번 추억하게 만들어준 이 기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